

벨 칸토 힐링 토크 콘서트

장 동 일
그레이스아트비전

성악 발성으로 풀어나가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

1. 프로그램

가. 한국가곡

- 1) 가고파 김동진곡, 이은상시
2) 보리밭 박화목곡, 윤용하시

나. 크로스오버

- 1) This is the moment(지금 이 순간)
From Musical "Jekyll & hyde" F. Wildhorn
2) La Golondrina (제비) N. Serradell
3)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R. Loveland

다. 오페라 아리아

- 1) Largo al factotum della citta (나는 이 도시의 만물 박사)
From Opera "Il Barbiere di Siviglia" G. Rossini
2) Toreador Song (투우사의 노래)
From Opera "Carmen" G. Bizet

다. 연주자 소개

- 1) 서울시립대학교 음악학과 성악전공 졸업, 이탈리아 루시니 국립음악원 최고과정 졸업
스페인 플라시도 도밍고 음악센터 1기, 이탈리아 루시니 아카데미아 전액 장학생

- 2) 서울시장상, 교육부장관상 수상 및 서울시립대학교 콩쿨 대상
이대웅 한국청소년 성악콩쿨 1위, 이탈리아 가곡연구회 콩쿨 1위 입상
이탈리아 "R.Leoncavallo", 알바니아 "Marie Kraja 국제콩쿨 등 국제콩쿨 5회 1위 입상
- 3) 스페인 발렌시아 극장, 프랑스 퐁루즈, 마르세유, 니스, 이탈리아 빠사로, 체제나 극장 등 유럽전역에서 오페라 춘회, 리골레토, 카르멘, 나비부인, 사랑의 묘약, 마님이 된 하녀, 라보엠, 세발리아의 이발사, 수잔나의 비밀, 카르멘, 랭스로의 여행 등 100회 이상 주역 출연
- 4) 전, 이탈리아 Pesaro 국제성악 아카데미아 "Renata Tebaldi-Mario Del Monaco" 교수, 이탈리아 Pesaro 국제음악콩쿨 전속 심사위원
현, 그레이스아트바전 대표, 서울시립대학교 겸임교수

다. 곡해설

1) 가고파

김동진(金東振) 작곡, 이은상(李殷相) 작시. 1933년 작곡자 김동진이 만 20세가 되던 해에 작곡한 것으로,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잊으리요 그 잔잔한 고향바다..."로 시작되는 향수가 어린 이은상의 시에서 감동을 받은 것이 작곡 동기라고 한다.

한국 가곡의 형태가 아직 정립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던 당시에 시가 지닌 무한한 향수를 잘 그린 이 가곡은 피아노 반주와 함께 선율이 맑고 아름다워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불리는 한국 가곡 중의 하나로 꼽힌다.

2) 보리밭

박화목 작곡, 윤용하 작시.

작곡자 박화목이 만 20세가 되던 1952년에 부산에서의 피난생활 중 작곡되었다. 1950년대에 부산에서 쓰여진 곡으로 처음에는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였으나 1970년대에 들면서부터 널리 불리기 시작하였다.

부르기에 그다지 까다롭지 않고 또 가락과 가사가 서민적이기 때문에 독창은 물론 합창곡으로도 편곡 되어 각계각층에서 널리 애창되고 있다.

3) La Golondrina(제비)

중남미의 여러 나라들은 15세기 이후에 400년에 걸쳐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압제에 시달렸는데 그 결과로 중남미의 음악들은 슬프고 애잔한 음악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제비의 원곡 La Golondrina도 그런 노래 중에 하나인 멕시코 민요인로서 원래는 스페인에서 작곡되었으나 멕시코로 넘어오면서 조국을 잃은 암울한 심경을 노래한 가사가 붙여져서 멕시코 국민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노래로서 널리 애창되어졌다. 멕시코 국민들에겐 우리나라의 아리랑과 같은 노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영남의 번안 곡 "제비"로

알려졌으며 1968년 멕시코 올림픽 폐회식에서 이 곡이 올려 퍼짐으로서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4) This is the moment(지금 이 순간)

This is the moment(지금 이 순간)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는 이성적인 과학자 지킬이 인간의 이성을 선악으로 구분하는 약을 개발하고 시험하려다 반대에 부딪쳐 직접 몸에 약을 투약하고 스스로 하이드로 변화해 간다는 내용이다. 뮤지컬에서는 지킬의 아버지가 정신병자임을 소개하는 인트로-병원에서의 신약 실험 발표에 따른 청원과 거절-지킬의 약혼식-루시와의 만남.

지킬은 이제 자신의 연구를 입증하는 길은 스스로 실험의 대상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주사를 하며 그 직전에 부르는 노래가 '지금 이 순간'이다.

5)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유명한 유럽의 연주그룹 시크릿 가든(Secret Garden)의 작곡가 겸 건반 연주가인 로프 러블랜드가 작곡한 이 곡은 선율도 아름답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가사 때문에 널리 불리는 것 같다. 가사는 번역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이 곡은 연주곡으로 만들어져 가사는 없고 멜로디뿐이었으며 곡에 우리말 가사를 붙인 것이다. 원제목은 〈Serenade to Spring〉이다.

6) Largo al factotum della citta (나는 이 도시의 만물박사)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는 오페라 부파의 거장 조아키노 로시니의 대표작으로, 1816년에 작곡되어 초연 이후부터 지금까지 널리 연주되고 있다. 젊은 귀족 알마비바가 우여곡절 끝에 사랑하는 여인 로지나와 결혼하는 해프닝을 다룬 이 작품은 보마르셰의 희곡 3부작 중 1부를 오페라로 옮긴 것으로, 19세기 이탈리아 벨칸토 오페라 전성시대를 여는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1막에서 피가로가 등장과 함께 부르는 경쾌한 아리아로 피가로가 으스스하며 자신을 소개하는 이 아리아는 〈세비야의 이발사〉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곡이기도 하다. '라라라레라~ 라랄라라~'의 경쾌한 도입부로 시작한다.

자신감 넘치고 유쾌한 피가로의 성격을 대변하는 아리아로, 실 새 없이 빠르게 움직이는 선율에 속사포처럼 쏘아대는 가사가 희극적인 재미를 더한다. 자신은 천하제일 수완 좋은 이발사이자 해결사로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문제만 생기면 찾는다는 내용으로 "여기, 저기, 여기, 저기 . . ." 혹은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등의 대조적인 가사가 빠르게 이어지면서 선율적으로도 해학적인 재미를 느끼게 한다.

7) Toreador Song (투우사의 노래)

비제가 작곡한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는 서곡과 더불어 가장 널리 알려진 곡으로 릴리아스 파스티아의 술집에서 젊고 잘생긴 투우사 에스카미요가 등장하며 사람들의 환호에 보답하여 부르는 아리아이다.

주니가가 카르멘에게 수작을 걸고 있을 때, 술집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며 한 인물이 등장한다. 그는 젊고 잘생기고 투우 실력까지 출중한 투우사 에스카미요다. 사람들은 에스카미요에게 환호를 보내고 그는 그 환호에 보답하여 술잔

을 들고는 정열적이고 역동적인 아리아 투우사의 노래를 부르고 카르멘에게 다가가 호감을 표시하지만 자신의 잘못
으로 인하여 대신 감옥에 간 연인 호세가 풀려난 것을 알고 있는 카르멘은 그의 관심을 가볍에 받아들인다.
에스카미요는 도도한 카르멘의 반응에 후일을 기약하며 물러선다. 이간이 흘러 카르멘은 에스카미요를 사랑하게 되
어 애인이었던 호세와 헤어지길 원했지만 카르멘을 잊지 못하던 호세는 카르멘을 죽이고 통곡하며 막이 내린다.